

지 역 경 제 일 지

1.7 강원특별자치도, 인구소멸 방지 시범사업(강원 스테-이, GANGWON STA-E) 추진

-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소멸을 가중시키는 저출산·고령화 등 급속한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인구소멸 방지 시범사업(강원 스테-이, GANGWON STA-E*)을 추진

* 강원특별자치도 영문 표기 'GANGWON STATE'에서 'T(Threats, 위협요소)'를 빼고 표기하였으며, 동음이의어인 'Stay'의 의미를 차용

- 동 사업은 '인구소멸 심각 위험지역 특별지원' 및 '강원 스테-이 하우스 운영지원' 2개 분야로 추진

- '인구소멸 심각 위험지역 특별지원' 사업은 지역소멸 심각 위험지역 관련 소권역(읍면동)에 새로 유입된 이주민과 지역주민간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

- '강원 스테-이 하우스 운영지원' 사업은 도내 한달살기 등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사무·주거·공용공간 및 편의 시설 공간 제공

-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여 정주민구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

1.12 강원특별자치도, 여주~원주 복선전철 착공

- 강원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·국가철도공단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'여주~원주(서원주) 복선전철 사업'* 착공식을 개최

*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총 22.2km, 2개 공구로 나누어 착공하여 2027년 개통될 예정

□ 동 사업으로 경기 남부지역(성남, 수원)뿐 아니라 서울 강남권(수서)에서 원주까지 직통으로 연결되어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

○ 공사 종점인 서원주역은 중앙선과 경강선의 분기점이 되어 서울에서 강릉, 동해, 경북 등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

□ 강원특별자치도는 '여주~원주 복선전철 사업'에 이어 '춘천~속초 동서고속화 철도', '강릉~제진 철도 건설사업'도 2027년 동시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

1.15 강원특별자치도, '중부권 반도체산업 메가클러스터' 확장 노력 경주

□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'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'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(1.15일)에서 「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방안」을 발표

○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인프라·투자환경 조성, 소부장(소재·부품·장비)·팹리스(공장 없는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) 역량 강화, 반도체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R&D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

□ 강원특별자치도는 '반도체 메가 클러스터' 조성 지역에 원주 및 강원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중

○ 강원형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'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'*을 적극 추진 중

* 인력양성, 테스트베드 구축, 부지조성, 기업 투자유치 등 4대 전략